2023년 11월 12일

주일예배 말씀을 토대로 삶을 나누는 **구역모임 말씀나눔지**

- 본문 :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 제목 : “복음에 합당한 증인”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본문 읽기

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3.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4.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5.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 마음의 문을 열며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지 외적인 조건과 내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다. 오늘은 바울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굴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례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증인으로서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면 ‘복음’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도구’인 인간의 잘못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성장하는 교회”를 소망하고 기도할 때 복음에 합당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고 익히도록 하자.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자신의 형편이 몹시 어려웠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선교하다가 큰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었는지 본문과 사도행전에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라. (2절, 행16:19~24)
2.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말과 행동이 투명하기를 원했다.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숨기는 것이 없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바울의 진실함과 솔직함은 무엇에 대한 것이었는가? 해당 구절을 찾아서 정리해 보라. (3절, 5절 / 1절, 2절, 5절)
3.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말한다. “옳게 여기심을 입어” 라는 말은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바울은 자격이 없는 자가 아닌가? 이 모순을 푸는 열쇠는 그의 고백 속에 있는 “은혜”에 있다. 왜 그런지 묵상해 보자. (4절, 딤전4:12~14)
4.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다. ‘나 잘났다’는 사람보다 ‘난 자격이 없는데 왜 이러실까?’ 하는 심정을 갖는 자가 아무리 어려워도 진짜 충성할 수 있다. 바울은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꾼이었다.
   당신에게는 이런 은혜의 감격이 어느 정도인가?
5. 은혜에 감격하여 충성하는 사람(은감충인)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2절, 4절)
   은감충인의 특징이 당신에게도 있는가? 빌립보를 경험한 당신은 데살로니가로 갈 만한 사람인가?
   그 결정에 "Soli Deo Gloria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기준으로 갖고 있는가?

· 삶의 열매를 거두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불러주시고 보배로운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고난과 모욕과 능욕이 있고 많은 반대가 있을지라도 굴하지 않고 사심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겠다는 충성의 마음을 고백하고 소그룹이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 말씀기도제목

1. 복음을 솔직하고 진실한 자세로 전할 때 거부감, 안도감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의 진실성”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2.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지만 무익한 종, 겸손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충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증인의 삶을 살아냄으로 믿음의 소문이 세상 가운데 퍼지는 “주님을 본받아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